

참된 가르침이 마음의 고삐 잡는다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부처님과 내기를 시작하는 손오공

할일 없는 꿀보직 제천대성 손오공에게 그저 소일거리로 하늘나라 복숭아 밭 관리를 맡겼구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니 이때부터 큰 재앙의 씨앗이 심긴 셈이로다. 제천대성 손오공의 하늘나라 뒤집기, 맹활약을 시작되네.

복숭아 틈틈이 다 훑쳐 먹고 서왕모의 복숭아 잔치를 온통 망가뜨리고 태상노군(太上老君)의 금단을 다 훑쳐 먹고...하늘 세상 온통 시끄럽게 되었구나.

여러 하늘 장수를 출동하여 원숭이 토벌작전! 그러나 재주도 출중한 손오공 쉽게 당할 리가 없다. 웬만한 장수들로는 감당이 안 되네 이랑진군과 관세음보살, 태상노군까지 출동하여 겨우 잡았구나. 후환을 완전히 없애려 태상노군의 팔괘로에 집어넣고 불을 때었건만 결국 거기에서 탈출하여 팔괘로까지 박살내고 이제 아주 하늘 궁전 접수하여 내가 옥황상제 되겠노라 설치는구나. 감당이 안 되는 이 사태, 결국 부처님께 지원요청을 하도다.

짜잔~드디어 부처님 등장하시도다. 난동을 부리는 손오공에게 부처님 물으신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리 소란을 떠는 거냐.’

손오공 당당히 대답한다.

‘옥황상제는 누가 맡아 놓고 하라는 법 있느냐? 힘 있는 놈이 최고다! 그러니 힘센 내가 하늘나라 접수하여 옥황상제 하리코다.’

부처님 혀를 차신다.

‘허허, 이 사람 닭알지만 아직 사람도 못된 원숭이 놈아. 그 자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다. 무한한 세월에 훌륭한 업을 쌓아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야! 그런데 네가 세다 세다 자랑하는데 얼마나 세단 말이나?’

손오공 으스스한다.

‘내 재주야 셀 수도 없지만 일흔 두 가지의 둔갑술에, 근두운이라는 신통한 재주도 있단다. 한번 곤두쳐서 십만 팔천 리를 날아가지. 이만하면 옥황상제 할 만하지 않나?’

부처님 슬쩍 도발을 하신다.

‘네 재주가 그러하다면 시험을 해 보자구나. 네가 내 손바닥을 빠져나가면 내가 책임지고 옥황상제에게 천궁을 비우라 하여 내가 접수하게끔 해 주겠노라!’

손오공 속으로 희희낙락한다.

‘이런 내기에 질 리가 있나!’

덥석 미끼를 물어버리네. 그리하여 부처님과 손오공의 내기 성립! 과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으시려는가? 어허,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난다는 그 뻔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결과는 알아도 과정을 모르실 거 같아. 그건 다음 이야기로~

지금까지 좀 능장을 부린 감이 없지 않아, 이제부터는 좀 건너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그림 · 최주현

같네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은 좀 자세히 조망하고요. 원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서유기를 빌려 불교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부당 없이 또 기탄없이 해보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유기에서 일반인들은 제일 재미있어 하는 손오공의 싸움 이야기들을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손오공 잡으러 출동하는 여러 장수들은 모두 도교에서 받들어지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다 위계가 있지요. 웬만한 신들은 손오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랑진군(二郎真君)이 나서지요. 그것도 관세음보살의 추천에 의해서요. 불교와 도교의 결합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랑진군이라는 신은 도교에서 관구이랑, 또는 관구신으로 불리는, 옥황상제의 조카로 상징되는 신입니다. 그리고 태상노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삼청(三清)을 가장 높은 신으로 받들니다. 서울에 삼청동의 그 삼청궁입니다. 삼청전이 있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지요. 삼청이란 옥청(玉清) 원시천존(元始天尊), 상청(上清) 영보천존(靈寶天尊), 태청(太清) 도덕천존(道德天尊)을 말합니다. 이중 태청도덕천존을 보통 태상노군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화신이 바로 노자(老子)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노자가 신격화된 것이 바로 태상노군이라 할 수 있겠네요.

손오공이 어찌나 드세던지 이랑진군이 나서도 손오공을 압도하여 궁지에 몰아넣기는 했지만 완전히 잡지는 못합니다. 이때 관세음보살과 태상노군이 나서고, 그 중에서 태상노군이 하늘에서 금강역이라는 것을 던져 손오공 머리를 맞아서 결국 포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괘로라 하는, 태상노군이 금단을 제련하는 단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태워 죽이려 합니

**제 힘 믿고 천궁을 망가뜨려
“옥황상제도 힘 있는 놈이 해야”**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
성공의 욕망은 어디에나 있어**

**지혜가 없다면 수단에 매몰돼
부처님, 가르침 주교자 내기걸어**

다. 그렇지만 손오공이 본디 보통 원숭이인가? 또 설정 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 인간의 마음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손오공은 하나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는 하늘의 복숭아를 밭때기로 훑쳐 먹었죠? 또 신선 가운데 최고라 할 수 있는 태상노군의 금단을 씹씹이로 훑쳐 먹었거든요. 죽어야 죽을 수 없고, 죽이려 죽일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래도 태상노군의 팔괘로라던 좀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손오공이 영민하게, 불기운을 몰아내는 바람의 방위인 손(巽)방으로 피해서 재난을 면하지요. 아무튼 참 대단한 비보통(非普通) 원숭이 손오공입니다. 그러... 그런데 바로 이 비보통 원숭이 손오공이 바로 여러분 마음을 그린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손오공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은 마음이 제 갈길을 찾지 못한 상태를 그린 것이기에,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지만요.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의 이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슬기롭고 날쌔니 고금에 누가 이에 비길 수 있으

리.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니,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까! 어진 이로 될 수도 있고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마음먹는 대로다. 착할 땐 부처와 신선도 될 수 있고, 악할 때는 짐승으로 털 들어 쓰고 뽀까지 내민다. 무한한 신통변화로 천궁을 소란케 하니, 뇌신과 신병도 잡지 못하는구나!”

슬기나 손오공의 천궁 어지럽히는 대목이 무슨 의미인가를 드러내고 싶죠? 마음 선하게 먹으면 부처 신선이요, 악하게 먹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그 힘을 다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장들도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서방의 석가여래 부처님께 구원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손오공이 날뛰고, 그것을 제압하여 잡아들이려 한 싸움은 세속적인 힘의 논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어, 진리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까요? 손오공은 인간의 마음이지요. 특히 깨달으면 지혜가 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선 어리석음이라 불리는 마음의 지적(知的)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난동을 부리네요. 그 난동은 단순한 세속적인 힘으로 제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수단이 많지요? 세상에서 마음 다스리는 수단들만 해도 엄청 많지 않던가요? 또 술법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수많은 마음 다스리는 기술로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던가요? ‘마인드 컨트롤’, ‘두뇌 개발법’ 기타등등. 혹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항의가 있을 까봐 자세히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진정한

큰 길로 이어지지 못하면 모두 잡속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로는 결코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단지 수단에 불과하게 되고, 그러한 수단과 기술에 매달리면 오히려 본질을 잃어 도(道)에서는 심판 팔천 리 떨어지게 되지요. 손오공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제압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요, 참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등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힘만 가진 마음의 난동을 온전하게 제압하는 길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밖에 없는 것이니라! 대중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길잡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마음 원숭이가, 참된 깨달음의 화신인 부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법 만나자마자 거기에 감복하여 들어갈 수 있다면 무슨 격경이겠어요? 더구나 손오공 상태는 제 힘에 취하고, 저잘난 맛에 하늘 높은 지우에 올라아하는 것이니 부처님 보기를 우습게 볼 수밖에요.

부처님의 물음, 압축하면 가법게 “너는 무엇 때문에 이 난리냐?”하는 물음에 저는 좀 전율이 일어났네요. “너는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 달려가고 있니?”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손오공의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살짝 서유기의 글을 의역해 볼까요?

하늘나라 영소보전(領所)은 옥황상제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더냐? 이 세상의 왕위도 남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힘센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아하는 것이니 나에게 양도함이 마땅하리라.

참으로 대단한 기개지요? ‘왕과 제후 그리고 장수와 정승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王侯將相 寧有種乎)’ <사기(史記) 진섭세가(陳涉世家)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을 하늘의 지배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말 자체는 그리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구요. 세상의 신분이 본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자체야 나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맛아! 신분질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꾸려는 노력이 나쁠 것도 없고요. 세상에 신분이 아예 없다면 모를까, 자신이 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꾸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겁니다.

손오공은 무얼 내세우고 있지요? 힘입니다. 힘센 자가 위에 선다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도 아주 종류의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단순무식한 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신분구조가 딱 결정되어 있지부동인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단순무식한 힘을 내세우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아쉬운 마음이 될 수밖에요. 정신 못차리는 손오공! 제 힘에 취한 손오공! 그 말로가 격경이네요. 부처님이야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완전히 힘의 논리로 박살을 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보죠.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투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출발일 : 11월 13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10월 2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출발일 : 11월 2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산/향주 6일	출발일 : 10월 31일, 11월 21일	요금문의	
미얀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2박 (경로/번머/동풍)	7일	출발일 : 11월 14일, 12월 16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 출발

선불 선량(善良)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향주/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제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룸비나-스라바스티-산기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콜롬보-이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라-칸디

스리랑카 6일
콜롬보-이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일루비라-칸디

스리랑카 원전일주 8일
콜롬보-이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칸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이누라다푸라-미한탈레-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미탈레-칸디-콜롬보-뭉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라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키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키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머얼링-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